

# 문과생도 의대 갈수 있다? 이대·고신대·순천향·관동 'OK'

한의대 12곳 중 10곳 인문계 선발  
수시모집 수능최저 기준이 높아  
수능 성적이 좋다면 정시가 유리

올해 대입에서 한의대 12곳 중 10곳은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한다. 일부 의대와 치대의 경우 계열별 교차지원을 허용하거나 인문계열 학생을 별도로 뽑는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다수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수능 대비가 필요하다.

15일 진학사가 2019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전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고신대와 순천향대 의대가 인문계열 학생을 뽑고, 정시모집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3곳이 문과생 출신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 치대의 경우 원광대가 수시·정시에서 인문계 학생을 별도 선발한다.

◆ **한의대 12곳 중 10곳 문과생 선발**  
한의대의 경우 수시모집을 기준으로 전국 12개 한의대 중 가천대와 상지대를 제외한 10개 한의대가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허용해 인문계열 학생들의 도전이 가능하다. 경희대의 경우 수시모집 학생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각각 13명과 8명의 인문계 출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우석대, 동신대, 세명대, 동의대 등 4개 대학 한의대가 인문계열 출신의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

한의대는 학과 특성상 다른 의학계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모집 비율이 높다. 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많아 해당 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많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7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90명을 선발하는데,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대구한의대, 대

전대, 동국대경주는 면접고사를 치른다. 학생부종합전형은 7개 대학에서 74명을 뽑는다. 이 중 경희대와 대전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서류평가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경희대가 유일하다. 논술 70%에 학생부 30%를 반영해 8명을 뽑는다. 경희대는 국어 수화나형, 영어, 사회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계열 선호도가 높아 문과생이도 지원 가능한 이들 학과 입시 경쟁률은 상

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자연계열만 뽑는 경희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67.63대 1이었던 반면, 인문계열을 뽑는 전형은 217.38대 1로 자연계열 모집보다 3배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 **이화여대 의대 등 인문계열 교차지원 허용**

올해 수시모집에서 인문계 출신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고신대와 순천향대 의대의 경우 이론상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의대 관련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을 보여주기 까다로워 합격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보통 수학 가형을 포함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만, 두 대학은 수학 나형에 응시한 인문계 학생 지원도 가능하다.

순천향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으로 21명, 지역인재(충남·충북·대전·세종) 전형으로 21명을 선발하는데, 면접 없이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요구한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나형과 사탐을 자신이 받은 등급에서 0.5등급을 더해서 계산하므로 실제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의학계열 지원을 염두에 둔 인문계 학생 중 학생부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수능으로 뽑는 정시 지원이 유리할 수 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와 이화여대 의대가 올해 정시가 군에서 각각 3명과 6명을 인문계 학생으로 별도 선발한다. 정시대군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수학 나형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 39명을 뽑지만,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원광대 치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문계열 학생 2명을 별도로 뽑는다. 1단계 서류 평가로 4배수 선발 후 2단계 면접을 치르는데, 수능최저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가 필요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넓지 않은 문이긴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도 의학계열 지원 기회가 열려있다”며 “다만 수시모집에서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합격의 관건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학기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대학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좋다. 특히 1차 신청시엔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6월 19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점 평균 B(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가구소득 1~3구간 학생은 기준치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에 따라 이미 1회 적용받은 경우라면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소득구간 체계는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청년창업 활성화 팔 걷은 동국대

창업지원단 우수아이템 시상  
개인카페 마케팅 플랫폼 등

소상공인들의 개인카페 마케팅 지원을 위해 페이스북과 연동한 '지도기반 웹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한 결과 월 매출 500만 원을 올린 대학생이 있어 화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14일 동국대 충무로영양센터에서 '동국창업리그 시상식'을 갖고 9개 팀을 선정, 총 상금 1000만 원을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동국대 창업지원단이 대학생들의 창업 관련 우수 아이템 발굴과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수상팀 중 대상에는 3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등 상금과 동국대 총장 명의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은 '소상공인 개인카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을 발표한 블랑크커피 대표를 맡고 있는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박용중 씨가 받았다. 블랑크커피는 페이스북 페이지 '카페갈래?'를 통해 팔로워 15만 명을 확보하고 페이스북 게시물과 연동한 '지도기반 웹 서비스'를 개발해 한 달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두루



동국대 창업지원단이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동국창업리그 수상자들이 지난 14일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인정받았다. 박 씨는 “체계적인 교내 창업 지원과 교수님들의 멘토링 덕분에 창업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 수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글쓰기와 동시에 간편한 직선 굿기가 가능한 볼펜 '제트라이드'를 선보인 라이노바 박용광 대표가 수상했고, 학생 부문에서는 동국대 화공생명공학과 동문혁 씨가 온라인 향수 시장 서비스 '세모향'으로 수상했다. 우수상은 블록형 원목 컷타워 'BLOCAT'를 개발한 이랜드월드 박준희 대표와 '약속시 위치 공유 서비스'를 발표한 동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박승현 씨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일반부 장려상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 사용자 맞춤형 진료과 추천 시스템을 선보인 JU(제이유)이정의 대표와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을 제출한 ㈜틸투윈 강상우 대표가 받았고, 학생 부문에서는 소셜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MCN BM모델을 구축한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정다빈씨와 휴양지 펜션 렌탈 서비스 '14day'를 출품한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신일 씨가 수상했다.

동국대 창업지원단 이용규 단장은 “앞으로도 동국대는 청년 창업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학교법인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 취임



에서 조직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KPMG 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10월부터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로서 선임대 상임이사로 재직해왔다.

조 이사장은 “부지런하고, 이기어 쓰며, 찾아서 하자”라는 광운의 창립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교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한국외대

#### 19일 모의논술 시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19일 서울캠퍼스에서 모의논술 시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각각 442명, 104명을 논술전형으로 뽑는다. 올해 시험

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 단축됐고, 문항 수도 기존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어 수험생 입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 단편적 결과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이를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를 밝히는 과정 중심의 서술이 요구되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 /한용수 기자

## 스승의 날, 가장 많이 찾는 은사님은?

대학생 2명 중 1명은 스승의 날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따로 인사를 드리거나 찾아 뵙는다는 은사님은 고교 교사가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2%가 스승의 날에 따로 인사 드리거나 찾아뵙는 선생님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생들이 찾는 선생님(복수응답)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57.3%)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때 선생님(24.5%), 초등학교 때 선생님(19.2%), 대학교 때 교수님(12.6%) 순이었다.

대학생 중 87.5%는 '인생의 스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인생 스승이 가장 필요한 때로는 '취업, 진로 등 장애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29.4%)가 가장 많

았다. 이밖에 '심각한 고민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등이 있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스승으로는 '나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승'(28.9%), '현명한 판단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스승'(28.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묵묵히 나를 응원해 주고 지켜봐 주는 스승',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오판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스승',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스승' 등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